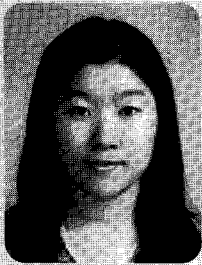


한-몽 도서관 정보 교류의 다리가 되어



신혜영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shy3379@hanmail.net

몽골 속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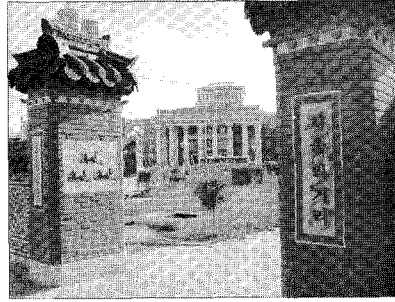
4년간의 대학 생활 후 대학도서관에서 1년 7개월 째 사서로 일하던 중, 대학 동기를 통해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파견에 대해 알게 됐다. 봉사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사서 분야를 파견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레임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뜨거워졌다. 봉사도 하고 전문성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마감 전달 지원서를 제출하고 여러 전형 을 거쳐 한 달간 국내훈련을 받고 몽골에 왔다.

몽골에 오기 전까지 대부분이 그렇듯 몽골하면 칭기즈칸과 초원, 말 정도를 떠올 리곤 했다. 유목민에게서 풍길 법한 진한 삶과 경험의 흔적을 기대했지만 수도에서는 이런 풍경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와 그 외 지역으 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도에만 개발이 집중되어 지방과의 격차가 크다. 어쨌든 울란 바토르에는 다양한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 기업과 음식 점도 많아서 국제도시 같다는 느낌이 든다. 몽골의 산업은 상당 부분 외국에 의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요식업, 건설업, 통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 가 되어 경영을 하고 있다. 수십 군데가 넘는 한국식당에서 김치찌개, 제육볶음 등 한국의 일반적인 식단이 몽골식의 2~3배 가격의 고급스러운 메뉴로 팔리고 있다. 인력 송출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 평균 임금이 한국의 1/10 수준이기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고 한국어를 익혀 한국으로 유학 혹은 일자리를 찾아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현재 270만 명의 몽골인구 중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무려 3만 명이 넘는다. 또 다양한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 와 영화를 무수히 내보내고 있어 한국인인 나보다 훨씬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본 것

* 몽골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문화》 2008년 4월호 와 5월호 2회에 걸쳐 몽골 국립도서관에 한국학전담사 서로 근무했던 김희근 한국 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의 글을 통해 먼저 소개한 바 있 다. 그 글과 함께 이번에 소 개된 몽골도서관 이야기를 읽어본다면 몽골도서관을 폭 넓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 칭기즈칸 국제공항



▲ 서울특별시·울란바토르시 자매결연 기념
'서울의 거리' (1996년 조성)

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를 통해 접하는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믿고 있으니, 이런 콘텐츠를 한류의 도구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여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 문헌정보학계의 현실

몽골은 아직 문헌정보학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서 관련 자료가 미비하고, 간행물은 몽골국립도서관에서 한 해에 두 번 발행되는 《Номын санч》(사서라는 뜻)라는 저널이 전부이다. 도서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는 사서 협회가 있긴한데,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다고 한다. 도서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서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을 충족시켜 줄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고 도서관 간이나 사서들과 교수들 간의 교류도 별로 없다. 그래서 최근에 선구적인 사서들과 문헌정보학 교수들이 도서관 포럼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아직은 개설 초기지만 관심있는 사람들이 웹상에서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참여하고 목록, 장서, 자동화, 서비스, 경영, 마케팅 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며 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다.¹⁾

몽골에는 도서관 용어를 정의해 자국어만으로 정리한 사전이 없다.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은 1976년판 러시아어-영어-몽골어 도서관용어집과 2005년에 몽골국립도서관에서 출판한 영어-러시아어-몽골어 서지관련용어집, 단 두 권뿐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도서관 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를 갱신하는 속도는 느린 편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도서관 시스템을 따라왔던 몽골의 도서관이 이제는 미국, 한국 등으로 모델을 바꾸고 있고 한국 도서관과의 정보 교류를 원하고 있어 최신 개념을 선별한 영어-한국어-몽골어 문헌정보학 용어집 제작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또한 전공 서적은 자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편찬된 것보다 외국에서 발행된 책을 번역한 것이 많다.

1) <http://lis.byteact.com>

울란바토르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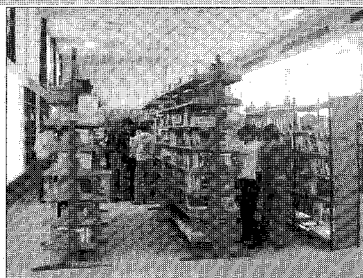
한정된 예산과 이용자 부담 가중, 도서관의 딜레마

내가 파견된 울란바토르시립도서관²⁾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존재하는 세 군데의 공공도서관 중 한 곳으로, 각 구에 4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1998년부터 호주의 소프트링크사(Softlink)에서 만든 ALICE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왔고 분류체계는 러시아분류법인 ББК를 사용한다. 2008년 4월 처음으로 30만 여권의 장서 중 6만5천권을 대상으로 일부 개가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다른 공공도서관들에 비해 놀라운 속도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하서고에는 희소성이 돋보이는 티베트 경전과 개가제 자료를 제외한 24만여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700여명이고 울란바토르 시민의 약 27%가 이용하는 울란바토르의 대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몽골 정부는 아직 경제·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해 도서관이라는 비영리 문화기관에 투자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다. 시에서는 예산의 70%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관내에서 회원등록비, 대출이용료, 연체료 등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회원등록비는 18~65세 이용자의 경우 7천투그르크³⁾인데 1년 후 1,500투그르크를 내고 1년을 연장하면 최대 2년간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후에는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1일 1책 당 300투그르크의 대출이용료, 1일 1책 연체 시 1,000투그르크의 연체료를 받는다. 몽골 생활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비싼 이용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양질의 자료 구비를 위한 예산 보충과 자료를 가볍게 여겨 훼손·오손하는 이용자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 티베트경전 등을 보관하고 있는 지하서고



▲ 개가식 열람실



▲ 칭구기호

2) 울란바토르시립도서관은 몽골의 유명한 작가 이름을 딴 나차그르지도서관(Нацагдоржийннэрэмжит хотынномынсан)으로 더 많이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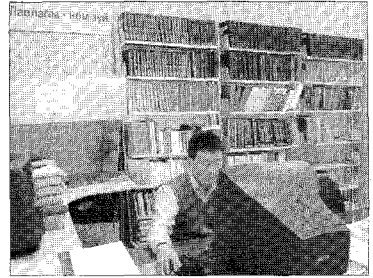
3) 현재 환율은 1원(₩)=1.24투그르크(₮)이다.



▲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서



▲ 자료검색대



▲ 참고서비스중인 사서

이용자 만족을 우선시하는 사서의 전환 필요

몽골의 도서관은 아직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도서관의 역할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보다는 장서 보존에 더 치중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여기에 와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도서관에 들어갈 때 옷⁴⁾과 가방, 개인 책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복사본마저도 절대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도서관을 공부방처럼 활용하는 한국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개인 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불편해 보이는데도 대학생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은 불평없이 공부할 내용을 노트에 적어 와서 공부한다. 도서관 안에는 16개의 CCTV가 곳곳을 감시하고 있다. 개가체가 시행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책 분실과 훼손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 훼손이 심한 것은 공공물 사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워낙 출판물의 종이 질이 안 좋아 쉽게 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열람데스크는 관외대출, 반납데스크가 떨어져 있고 안내열람 시 거쳐야 하는 대출과 반납데스크도 분리되어 있어 총 네 군데이다. 데스크마다 사서들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담당사서가 자리를 비우면 대출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긴 줄로 늘어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자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담당자가 책임을 지야 하기 때문에 열람사서는 반드시 자신의 아이디로만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도 없다. 사서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리 비울 일이 생기면 이용자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전혀 미안해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이 도서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그만큼 개가체를 시행하는 도서관이 거의 없고 열람실도 넓은데다가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료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도서관 환경에 절로 감사하게 된다.

미국정보센터

이 도서관 내에는 2004년 개실한 미국정보센터가 있다. 이곳에는 미국대사관에서 제공한 도서관 내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가능한 6대의 컴퓨터와 4대의 DVD플레이어, 화상회의용 대형TV 등 고가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고

4)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겹옷을 보관소에 맡기는 것은 몽골의 예의이기도 하다.



▲ 도서관 현관에 부착된 현판



▲ 미국정보센터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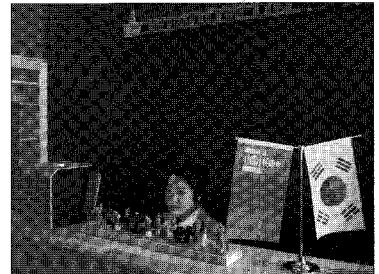
미국의 문화, 경제, 사회와 관련된 각종 연속간행물과 단행본, 비도서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대사관에서 초청한 미국인이 미국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대사관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영어 회화 키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이상적인 자료실이다. 작년 12월에 미국정보센터 5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는데, 식순에 이용자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곳을 이용하면서 영어실력이 크게 향상된 학생들이 영어로 축사를 읊고,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연기하며, 미국 노래를 불렀다. 미국대사관의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 내심 부러웠다. 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얼마 전 개관한 몽골국립도서관 내 한국학정보센터도 선진국의 도서관답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학정보센터

몽골국립도서관 내에 자리 잡은 한국학정보센터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몽골국립도서관, 한국국제협력단의 합작으로 2009년 11월 12일 개설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4천5백만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6백만원 상당의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제공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추후 5년간 연간 400만원 상당의 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폐가제를 시행 중인 몽골국립도서관 내 자료실 중 처음으로 개가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서가 접근과 자료 선택 및 열람을 가능케 했고 각종 디지털 장비를 구비해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에 대한 몽골사람들의 관심은 높는데 반해 이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극히 드물었기



▲ 한국학정보센터 개설키



▲ 한국학정보센터 사서데스크

때문에 울란바토르 내 20여 개 대학의 한국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한국 자료에 목말라 있는 수천 명의 한국 교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학정보센터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파견 인력인 최현미 사서와 '문화동반자프로그램' 을 통해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는 Tuvshintungalag 사서가 관리하고 있다.

열정적인 사서들이 있어 희망적인 도서관의 미래

어느 날 동료 사서에게 학부에서 어떤 교재로 공부하는지 물었다. 정말 많은 책이 있다며 선별해 준 5권의 책 중 2001년에 출판된 번역서 한 권이 눈에 띄었다. 원서는 2000년 미국에서 출간한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이었는데, 번역자의 이름이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이 두꺼운 책을 누가 몽골어로 번역했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우리 도서관의 부관장과 전산사서를 포함한 여러 사서들이 했다고 한다. 도서관 정보에 대한 갈증을 현지 사서들이 직접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서들이 외국 도서관 방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어 도서관에 적용해보고, 나를 통해서는 선진 한국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얻어 서비스와 운영에 적극 반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 공공도서관과의 자매결연도 계획 중이다.

파견 초기에는 이용자들이 대출이용료를 내고, 사서들이 북트릭 대신 쇼핑카트에 책을 담아 나르고, 책등이 아닌 책표지에 볼펜으로 청구기호를 쓰는 등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도서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몽골의 도서관이 열정적인 사서들에 의해 한 단계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해도 타인과 나누지 못할 만큼 적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과 최대한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